Daishin 증권

2026년 05월 21일 목요일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권틴전시 플랜] 삼성전자 파업 우려에 변동성 지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

- 삼성전자 노사 협상 난항, 총파업 불확실성 잔존
- 채권 금리 상승세 지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인식한 시장
- Risk-Off 확산 속 대부분 업종 약세 전개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Industry Report] 자동차/부품: 상승의 관성

- 현대/기아 SOTP 밸류에이션(260조원) = 본업 186조 + 로봇 64조 + SDV 9조
- 시장의 세가지 QnA: BD 상장 시점/전략적 지분투자/외인 수급 유입 조건
- 현대차그룹주 + 테슬라 밸류체인 중심투자. 현대/기아/현대모비스/HL만도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 삼성전자 파업 우려에 변동성 지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

- 삼성전자 노사 협상 난항, 총파업 불확실성 잔존
- 채권 금리 상승세 지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인식한 시장
- Risk-Off 확산 속 대부분 업종 약세 전개

## 삼성전자 노사 협상 난항, 총파업 불확실성 잔존

금일 삼성전자 노사 간 3차 사후조정이 진행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 수원지법의 판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협상 지연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상황

노조가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며 파업 리스크가 재차 부각.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

삼성전자는 장중 4.4%대 급락해 코스피 약세를 주도. 그럼에도 장 후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며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 이후 노동부 장관 주재로 오후 4시 협상이 재개되면서 NXT 거래에서 삼성전자는 약 1.5% 강세 전개

전일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 목요일 오전 6시에 예정된 상황.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 강세 전개할 경우 국내 강세 반전, 상승 탄력 강화될 가능성 높음

**반도체**: 삼성전자(+0.2%), SK하이닉스(+0.0%), SK스퀘어(+0.9%)

## 채권 금리 상승세 지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인식한 시장

글로벌 증시 약세의 주된 요인이었던 미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5.18%까지 상승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4.6%대에서 등락 중

현재 CME FedWatch 기준 연내 금리인상 확률은 74.69%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Fear & Greed Index는 5월 1일 71p에서 현재 60p까지 하락하며 불안한 투자심리 반영. 달러-원 환율도 1,510원 부근까지 레벨업. 외국인 투자자는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Risk-Off 확산 속 대부분 업종 약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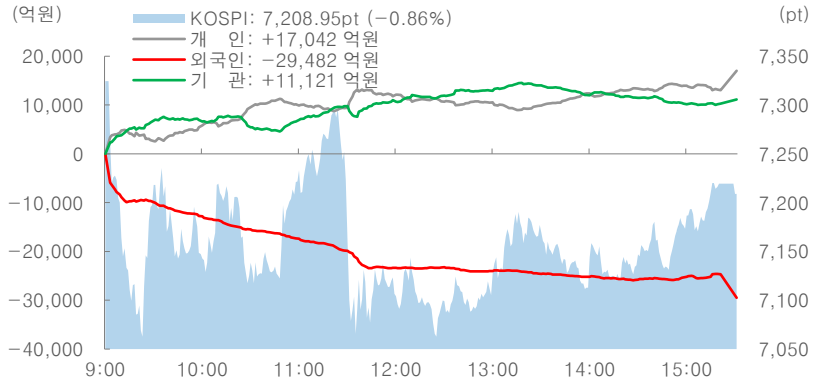
투자심리 위축되며 대부분 업종 약세. 조선 업종은 데이터센터향 수주 기대감 유효

**조선/엔진**: HD현대중공업(+6.4%), 한화엔진(+5.0%), HD현대마린솔루션(+1.8%)

**정유/화학**: 롯데정밀화학(-5.5%), 한솔케미칼(-10.4%), 효성티앤씨(-4.8%)

**원전**: 두산에너빌리티(-4.4%), 한국전력(-5.8%), 한전기술(-3.2%)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자동차/부품

# 상승의 관성

김규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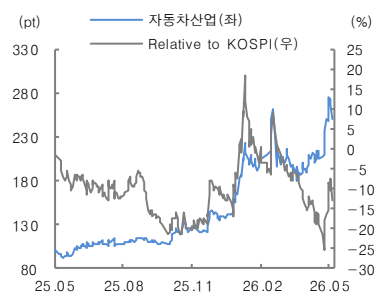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 종목명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
| 현대차(★) | Buy | 770,000원(상향) |
| 기아(★) | Buy | 260,000원(상향) |
| 현대모비스(★) | Buy | 730,000원(상향) |
| HL만도(★) | Buy | 100,000원(상향) |
| 에스엘 | Buy | 86,000원(상향) |
| 현대오토에버 | Buy | 720,000원(상향)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19.7 | 22.6 | 103.8 | 153.4 |
| 상대수익률 | -1.4 | -10.2 | 7.2 | -11.4 |




- 현대/기아 SOTP 밸류에이션(260조원) = 본업 186조 + 로봇 64조 + SDV 9조
- 시장의 세가지 QnA: BD 상장 시점/전략적 지분투자/외인 수급 유입 조건
- 현대차그룹주 + 테슬라 밸류체인 중심투자. 현대/기아/현대모비스/HL만도

## 자동차 업종 상승 관성은 여전히 유효

1) 3Q26 테슬라 옵티머스 Gen3 초도 양산, 2) 현대차 RMAC 가동, 3) 미국 로봇 산업 육성책 발표, 4) 중국 유니트리 상장 등 이벤트 포진. 상승 관성은 지속될 것

현시점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의 상단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신사업의 모멘텀 꺾일 수 있는 요인으로 1) 예상 산업 규모(TAM) 하락, 2) 생산 병목, 3) 공급 과잉, 4) 수익성 위축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개화 극초기 단계로, TAM 하락/공급과잉/수익성을 우려하기엔 너무 이름. 오히려 테슬라/FigureAI/BD 초도 양산 본격화로 시장 개화 → TAM 상승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SOTP 밸류에이션 = 본업 + 로봇 + SDV

SOTP 밸류에 기반한 현대차/기아의 타겟 기업가치 260조원 제시. 본업 가치 186조원/로봇 가치 64조원/SDV 가치 9조원 합산해 산출. 현대차 타겟 기업가치 157조원(본업 106조/로봇 45조/SDV 6조), 기아 타겟 기업가치 103조원(본업 80조/로봇 19조/SDV 3조원) 제시

## 시장의 QnA

**Q. 보스턴다이나믹스(BD)의 상장 시점? → A. 빨라야 2027년 하반기 이후일 것**

소프트뱅크의 잔여지분 풋옵션은 BD의 상장 기한이 아닌 유동성 보장 장치. IPO 시한을 규정하는 것 아님. BD의 상장은 동사의 대규모 자금조달 시점과 맞물려 진행될 것. BD의 재무현황 감안 시, 2026년내 기존 주주의 추가 자금 투입 => 2027년 이후 가시적인 대규모 Capex 집행 계획과 맞물려 상장 진행 예상

**Q. BD 파트너사의 전략적 지분투자 가능성? → A. 누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관건**

투자 발표전까지 관련 내용 파악 사실상 불가능. 중요한건 1) 어느 기업이, 2) 얼마 밸류에 들어오는지임. 전략적 투자자로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상장 전 실제적인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선제적인 투자대응은 어렵지만, 현실화 여부에 따라 대응 필요한 영역

**Q.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까? → A. 테슬라 옵티머스 Gen3/미국 정책주목**

2H26 테슬라 Gen3 공개, 2) 미국 정책 모멘텀에 주목. 3Q26로 예상되는 테슬라 옵티머스 Gen3 공개 통해 휴머노이드 양산 가시성 확대 → 시장 개화기에 산업 성장률 전망 상승 전망. 피어 업체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

## 투자전략: 시장은 관성을 기억할 것. 현대차그룹주 + 테슬라 밸류체인 주목

Top Picks: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HL만도

현대차그룹주 중심 섹터 상승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3Q 테슬라 옵티머스 Gen3 공개에 따른 테슬라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전략 제시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